

농·어촌교육의 전환과 실천적 방안

마을교육공동체와 학교유형 다양화를 통한 농·어촌교육 활성화방안 모색

전남 무지개학교지원센터

파견교사 최관현

언론과 연구기관에서는 ‘지역소멸’을 이야기 하고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합’은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다.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여서 이제 ‘미래교육’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관련 예산과 정책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혁신학교를 확장해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를 이야기 하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소멸과 마을교육공동체’, ‘농·어촌학교 해체와 미래교육’ 농·어촌은 모순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과거’없는 ‘현재’가 없고 ‘미래’ 또한 없다. ‘미래교육’은 과거로 부터 시작해 현재를 지나 미래로 나아갈 때 튼실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다. ICT 기기 몇 대 학교에 더 지원해 주고 소프트웨어 교육 조금 더 한다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건 아니다. 농·어촌의 미래교육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기 전에 지나 온 역사를 되돌아 보고 현재를 보다 자세히 살펴야 한다. 또한, ‘마을’ 없는 ‘마을공동체’는 공허하고 ‘학교’없는 ‘교육공동체’ 또한 어색하다. 농·어촌의 마을교육공동체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장미빛 사례가 아닌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첫 걸음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담론들이 모순된 구조로 대치되어 있는 현재, 농·어촌의 정체성과 특성에 맞게 논의를 재구성해서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 흩어져 있는 의제들을 재구성하여 통합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농·어촌에 있어 ‘오래된 미래’와 같은 화두일 수 있다. 인간관계와 협업의 문화 속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며 함께 관심 갖고 함께 보살피며 함께 키워 왔던 ‘우리 마을’,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의 전통을 다시 세워 ‘지역 교육력(마을 교육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농·어촌의 어려움과 한계를 이야기 하며 떠나는 사람들과 관심들을 다시금 모아 ‘지역 자치적 역량’으로 재구성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모순으로만 여겨졌던 ‘농·어촌의 마을교육공동체’, ‘농·어촌의 미래교육’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꽃’으로 피어

날 수 있다.

어렵고 험난한 길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마을교육공동체와 미래교육에 대한 본질적 관점을 견지한다면 오히려 많은 가능성이 이미 옆에 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에 있어 '교육(마을)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 교육혁신지구, 미래교육'은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이다.

I. 농·어촌과 마을교육공동체

1. '마을교육공동체'와 '농·어촌교육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생배움중심 역량교육 등으로 대표되는 '혁신교육'과 학교와 가정, 교육청과 지자체의 선순환적 협력모델인 '혁신교육지구'의 기반속에 모색되고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체계라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에는 단위학교의 문화와 교육내용과 방법을 바꾸어 미래지향적 교육을 실현해 온 '혁신'의 가치가 담겨 있다. 또한, 단위학교를 넘어 마을(지역)의 교육문화와 시스템을 혁신해 공동체교육의 본질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미래'의 가치도 담겨 있다.

농·어촌에 있어 '마을교육공동체'는 이미 오래전에 형성되어 있는 전통적 소산물이고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는 교육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촌교육에는 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요소가 학교교육 속에 녹아들어 있었고, 마을의 다양한 생활과 교육속에 '삶을 위한 교육'이 실현되고 있었다. 농·어촌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학부모나 마을회의, 기초단체장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지역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현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당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마을과 교육이 함께 연계되어 공동체가 생성, 유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마을교육공동체는 급속히 진행된 농·어촌 인구감소(학생 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로 인해 위협받아 왔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주로 시·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3,743개교가 통합되었다가, 1999년에는 정부 주도로 대대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통합돼 한 해에만 971개교가 통합됐다. 학교의 통폐합 유도를 위한 예산지원과 통학버스 운영 등으로 대표되는 농·어촌학교 재구조화 사업, 거점학교 육성 사업, 전원학교 사업 등 많은 외부 예산 지원에 의존한 사업들로 인해 역설적으로 마을교육의 인프라, 지역 교육력, 주민 자치적 역량은 약화되어 왔다.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는 교육주체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 나갈 모두의 목적이 아니라 외부의 지원사업과 지원

금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로 변화해 온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학교는 마을과 분리되어져 왔고 공동체는 붕괴되어져 왔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외부)주도의 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폐합 위기의 소규모 학교들을 살린건 매년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학교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자 했던 교육주체들의 자발적 노력이었다. 혁신학교가 그 것이다. 혁신학교의 실천은 통폐합 위기에 있었던 '작은 학교'로 부터 시작되었고 농·어촌 교육과 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혁신학교를 통해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해 농·어촌학교교육이 활성화 되었고 학교 인근 마을에 전입주민이 늘어나면서 마을이 활성화 되었다. 어렵기만 하던 농·어촌 교육에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공동체성에 기반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 혁신학교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여 왔다. 전국의 많은 지역의 많은 학교에서 이러한 비전은 현실이 되었고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농·어촌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로 인해 통폐합의 길목에 있는 농·어촌의 학교와 마을은 더 이상 '혁신학교'라는 '단위학교'의 틀만으로 유지 및 활성화 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단위학교'의 틀을 넘어서는 보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는 농·어촌 교육과 마을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고 다양한 방안을 가능하게 한다.

지난 20년 동안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한 '혁신학교'를 통해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활성화 하였고 마을을 활성화 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20년은 '마을(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하고 재생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농·어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

김용련 교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목표를 '학생들에게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실천적 방법으로 학습시킴으로써 그들의 학습역량과 정의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결과가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적 구조의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이를 위해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김용련 교수,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발제문 中)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특수성과 타 지역과의 관계를 내용적으로 확대하고, 마을의 인적·문화적·환경적·역사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러한 마을교육의 성과가 마을로 환원될 수 있는 선 순환적 성과수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선 순환적 구조 속에서 마을교육 요소들의 총합으로서의 ‘지역 교육력(마을교육자본)’과 마을교육 거버넌스로서의 ‘주민 자치적 역량’을 키워 지속적인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농·어촌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마을)를 활성화하기에 아주 좋은 요소를 갖추고 있다. 농·어촌은 지역의 오랜 역사와 고유의 문화, 뛰어난 자연환경 등의 요소와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을 실행하기가 좋다. 인구의 유동성이 적고 실명성이 강하여 인간 관계망이 촘촘하여 지역 교육력에 대한 진단과 향상시키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대도시에 비해 용이하다. 또한, 여전히 마을회의 문화가 남아 있고 오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형성된 민과 관의 소통과 의사결정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주민 자치적 역량’의 토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농·어촌이 인구감소로 인한 ‘구조적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전남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현재 40% 가량의 학교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의 ‘적정규모 대상학교’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여건이 열악해 지고 학교교육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 농촌학교에 대한 불신과 함께 마을의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마을교육공동체’의 요소를 회복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학교공간 재배치, 제도 및 운영시스템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들의 농촌학교 불신 -> 도시유학 -> 가족동반이동 -> 농촌인구감소(고령화 진행)
 -> 학생수 감소(교육여건 열악) -> 폐교, 통합학교, 복식학급 -> 학교교육력 저하
 -> 주민들의 농촌학교 불신

3. 농·어촌교육 활성화의 방향

농·어촌은 전통적으로 생성, 유지, 발전해 오던 ‘지역 교육력’을 급격한 도시화와 정부 주도의 학교 통폐합 정책추진 과정에서 상실하였고 현재는 인구감소속에 존재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현재의 마을교육공동체 논의의 기반이 되는 ‘학

교교육력'과 '지역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움직임', '생태, 민주시민 등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담론과 다양한 인프라'를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현재의 혁신학교의 발전된 형태로서의 마을교육공동체나 혁신학교를 확산하는 과정으로서의 학교혁신지구의 틀로서는 농·어촌 마을교육공동체를 고민하거나 도모하기 어렵다. 농·어촌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관점과 접근법이 필요하다.

우선 농·어촌의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 교육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 지방소멸로 상징되는 위기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교육체계와 시스템을 미래지향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토대'와 '발전 가능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주민 자치적 역량'을 회복하고 발전시켜 결국 '지역 교육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농·어촌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혁신학교'의 주요 동력이 되었던 '교육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혁신교육지구'의 필수 요소인 '교육행정의 혁신을 통한 지원과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탁상행정의 한계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하향식 획일적 추진이 아닌 '현장에 대한 이해와 의견 수렴을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어촌 학교(지역) 유형별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II. 농·어촌 학교(지역)유형별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

1. 추진방안

농·어촌은 학교와 지역의 현황이 매우 다양하다. 중심지와 거리의 차이, 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이, 학교 분포에 따른 차이 등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와 비전, 계획 등이 크게 다르다. 때문에 획일적인 하향식 지원방안보다는 단위학교 및 각 마을에 적합한 맞춤형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 학교(마을)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변화 도모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상향식이되 선도적인 지원이어야 실효성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이미 계획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으로 '추가' 하기 보다 기존 정책과 '연계, 통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혁신 정책과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교육부를 중심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미래교육 등을 연계하고 통합하여야 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

합하여 학교와 지역에 적합한 비전과 로드맵을 지원하고 학교주체들이 주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어촌 학교(지역)를 몇 가지 유형화 하여 기본 틀을 제시하고 이를 기본으로 학교(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래 제시된 유형은 그 예라 할 수 있다.

예시안 - 유형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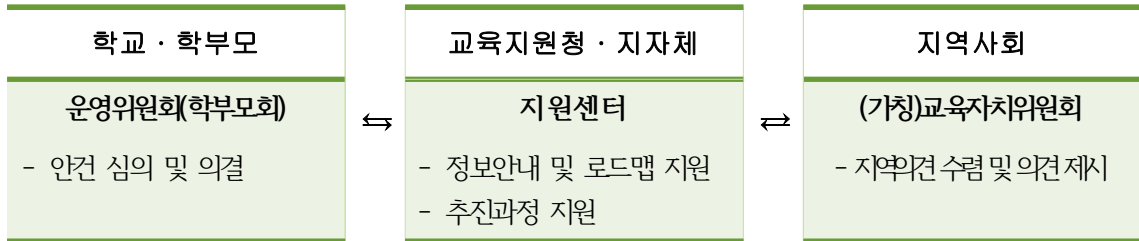
순	유형	특징
1	도심(읍) 인근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읍) 인근에 있어 학생 유동가능성이 많은 학교 • 도심(읍)학교로 학생들이 전학을 가서 학생 수 감소 • 복식학급 적용 이후에는 급격한 학생 감소 현상
2	작은 면 인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읍)과는 거리가 있으며 (작은)면과 (작은)면이 인접해 있는 학교 • 전 학년이 있으나 전교학생 수가 20-50명 정도의 규모 • 교직원 수는 많이 필요하나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는 어려움 (특별실 부족, 교육활동비 부족, 지역인프라 부족 등)
3	초·중 인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의 규모가 커서 유·초·중이 인접해 있는 학교 • 초·중간 인접해 있으나 제도적 한계로 연계교육이 거의 없음 • 인근에 중학교가 있으나 읍 학교로의 진학이 많음
4	원거리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읍)과의 거리가 매우 멀고 인접해 있는 학교가 없는 원거리 학교 • 학구 내 학생 수가 극소수이고 교육인프라가 현저히 부족 • 복식학급이 다수이고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이 열악해 저서 수년 내 통·폐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2. 추진 체계와 원리

교육주체들이 자발적 의지와 필요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체들이 고민을 확장하고 심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비전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추진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지원주체와 체계’ 즉,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에서의 교육거버넌스는 지역의 교육정책과 교육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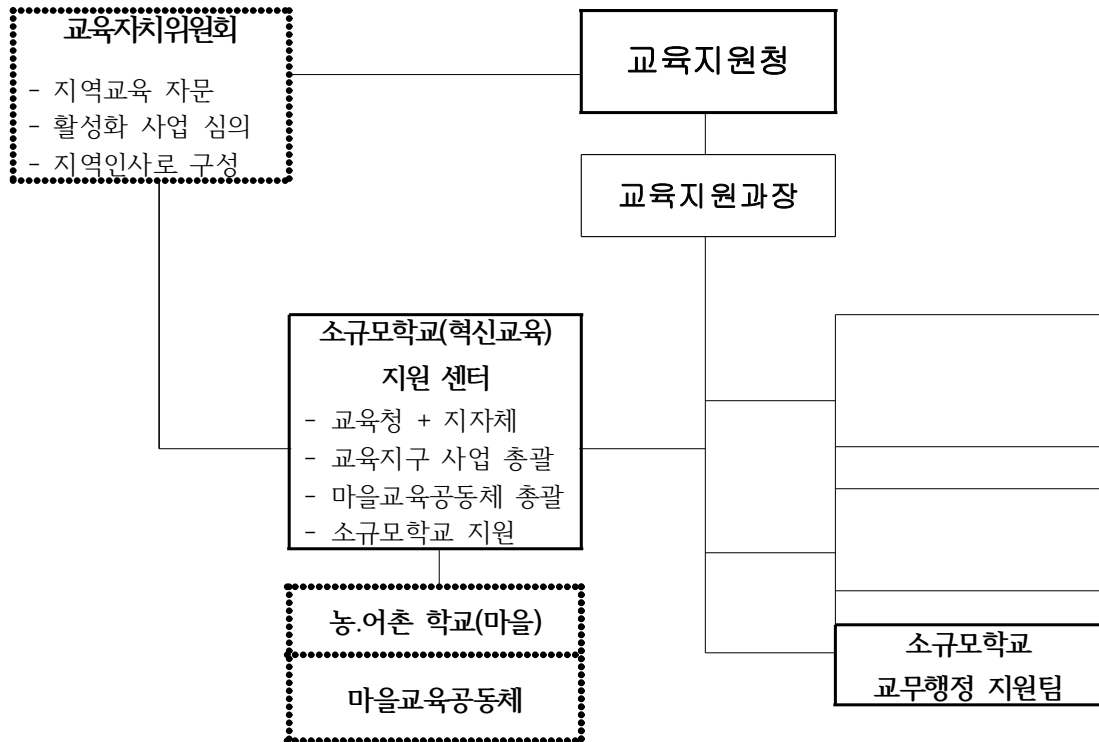
지에 대한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국가로 부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이어져 왔던 하향식, 일방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주민 자치적 역량'에 기반한 상향식, 쌍방향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교육주체, 교육청,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쌍방향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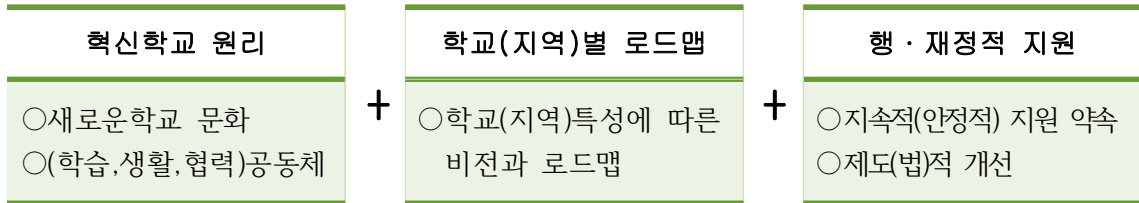
이러한 거버넌스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겸비한 '플랫폼'기능을 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존하고 교육주체와 주민들이 언제든지 지원을 받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변화가 필요한데 아래와 같은 구조는 그 예로 볼 수 있다.

예시안)



혁신학교는 학교교육의 목적점이 아니라 근대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 미래 지향적인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원리이자 과정이었다. 이러한 혁신학교의 원리는 농·어촌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의 과정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예시안)



3. 유형에 따른 비전과 지원사항

추진체계 형성(거버넌스 구축)과 추진 원리와 함께 각 학교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전과 로드맵이 필요하다. 실제로 그 학교를 다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학교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적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교육의 벽을(물리적 벽이라기 보다는 내용과 시스템 적인 벽) 허물고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새(미래)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소멸위기의 농·어촌학교를 ‘미래학교’, ‘미래교육’으로 재구성해 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예시안 - 유형에 따른 비전과 지원사항)

순	유형	비전 및 지원사항
1	도심(읍) 인근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질을 높여 도심(읍) 학생들을 부분적으로 흡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의 원리를 적용한 학교운영으로 교육력 강화 • 도심(읍)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활동 • 청소년문화센터(가칭)와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질 높은 방과후교육 •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 • 통학버스 확대·수시 운영 • 교육지원청의 청소년문화센터(가칭)의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2	작은 면 인접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두 학교를 통합하여 두 개의 특성화된 학교로 운영 • 교무실, 행정실을 통합하고 학년 수를 줄임으로서 예산을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 교감, 행정실, 담임교사 인원감축으로 인한 예산 절감분을 학교에 재투입 • 학년을 나누어 분산 운영함으로써 교육환경을 최적화 하고 교육의 질을 높임 ○ 저학년 중심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1, 2학년 중심의 저학년 학교 (저학년 교육에 최적화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공동담임제 도입 - 무학년제 체험중심 교육활동 확대 - 미래형 생태놀이터,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시설 확대 - 저녁(밤 8시) 및 휴일 돌봄 학교 확대 - 취학 전 유아교육 실시 (주말, 휴일 중심) ○ 고학년 중심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3~초6학년 중심의 학교 (고학년 교육에 최적화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역량기반 중심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지교과: 담임중심의 개별 맞춤형 탐구교과: 전문가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 학습 예체능교과: 전문강사, 방과후 교육과 연계한 다양하고 심화된 활동 - 교과전담 교사 확대를 통한 수업의 질 향상 - 유휴교실 재구조화를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 특별실 확대와 운영비 증액을 통한 질 높은 방과후 교육활동 실시
3	초·중 인접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과 인력감축으로 인한 절감예산을 해당학교 교육활동비로 재투입 • 새로운 인력운영 시스템에 필요한 제도개선 • 통합에 따른 공간재구조화 시 '미래형 학교'로의 환경 개선 • 교과전담 교사 및 교무행정지원 인력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중 통합(연계교육 강화)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유+K9 학교로 운영 • 교무실, 행정실을 통합하여 예산을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 교감, 행정실 인원감축으로 인한 예산 절감분을 학교에 재투입 • 중학교 교사의 초등수업(예체능, 탐구교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 타 학교 순회교사의 초등수업 지원을 통한 운영 효율화 - 초등 교과전담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수업 부담 감소 • 초·중등 연계교육을 통한 교육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체능, 창·체, 동아리, 스포츠클럽 등 연계교육을 통한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질 향상 <p>○ 학교구조를 ‘유-초-중 연계교육’과 ‘마을학교’로서의 역할에 맞게 지자체와 연계하여 미래형으로 재구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 간 연계,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 • 방과후 교육활동 공간을 마을과 공유(오전-노인, 오후-학생, 저녁-평생교육) • 학교 도서관, 급식실, 보건소 등을 마을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과 인력감축으로 인한 절감예산을 해당학교 교육활동비로 재투입 • 중학교 교사의 초등수업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초·중등 연계교육을 위한 제도개선 • 역량기반 교육 및 마을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형 학교’로의 환경 개선 • 급식실, 도서관, 특별실의 마을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4	도심(읍) 원거리 학교	<p>○ 캠퍼스 형 개념도입으로 인근 학교와 교무실, 행정실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학교와 통합을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실, 행정실 통합을 통한 운영비 절감 및 교무행정 업무 제로화 - 절감된 예산을 교육활동에 재투입해 교육의 질 향상 -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중심학교로의 등교 지원 <p>○ 소규모 학생수에 적합한 개별 맞춤형 교육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 맞춤형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다양화,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역 전문강사 확대 등 •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합교육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센터(가칭)에서 연 30일 이상 문화, 예술, 체육 통합교육 실시 - 교육지원청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운동회, 발표회, 체험학습 등) 통합 운영 <p>○ 학교와 지역사회간 기능 통합을 통한 농·어촌마을과 교육의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구조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미래형으로 재구조화 하고 ‘마을학교’로서의 역할 강화 (지자체 연계) - 학교운영비 절감을 통한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교육활동 공간을 마을과 공유(오전-노인, 오후-학생, 저녁-평생교육) - 학교 도서관, 급식실, 보건소 등을 마을과 공유 • 지역민들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 (돌봄, 특기적성, 급식조리, 시설관리 등) • 휴일, 방학 중 지역활성화를 위한 체험, 문화관광 장소로 학교 공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기반 교육 및 마을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형 학교’로의 환경 개선 • 급식실, 도서관, 특별실의 마을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청소년문화센터(가칭) 확대 및 기능 강화 • 통학택시 지원(혹은, 학부모 통학 유류비 지원)

4. 추진과정

뜨거운 물에 갑자기 손을 대면 ‘앗! 뜨거워’하고 빨리 느낄 수 있지만 물에 손을 넣고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 뜨거워 지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농·어촌 교육의 침체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여건이 되거나 소위 능력이 되는 사람과 가정들은 이주를 하거나 여러 형태의 유학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지가 약한 경향이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열악한 사회계층의 비중이 높아 기회가 될 수 있는 정책사업들에 대한 관심과 반응속도 낮은 경향이 있다.

이에 농·어촌의 교육(마을)활성화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동시적 추진과 단계적 실행’의 추진과정이 필요하다. 모든 학교와 지역이 문제의식과 정책을 공유하고 계획을 수립하되 실행은 추진의지가 강하고 여건이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이 더 소외되고 중심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추진체계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예시안일 수 있다.

예시안 - 추진과정)

순	내 용	방 법
1	모든 학교의 ‘중장기 계획 수립’	학교발전 5개년 계획 교육지원청 5개년 계획
2	소규모학교에 ‘유형별 지원방안’ 안내 및 유도	지역청 지원센터 지원
3	희망학교 선정 및 계획 수립	타 사업과 연계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미래학교, 시설개선 등)
4	모든 학교의 계획을 토대로 도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도(교육지원청) 지원센터 중심으로 수립 및 추진

5. 기타 과제

이 외에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과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가. 관련 제도개선

- 1) 통학버스 확대·수시 운영 방안
- 2) 통합과 인력감축으로 절감된 예산을 해당학교 교육활동비로 재투입 방안
- 3) 중학교 교사의 초등수업, 공동담임제, 작은학교 교과전담교사 확대 등 교원 정책 개선안
- 4) 초·중등 연계교육(K9) 기반
- 5) 급식실, 도서관, 특별실 등 학교와 마을과의 학교 공간 공유 방안
- 6) 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 시 로드맵에 기초한 중·장기적 추진 방안

나.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농·어촌교육 지원센터’ 체계 구성 및 추진 역량 강화

-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다.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청소년문화센터(가칭)’ 설립 및 운영

- 지자체와 연계한 설립 및 운영 방안

라. 소규모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 및 개발

- 통합교육과정, 프로젝트형 콘텐츠, 맞춤형 교육과정, 교재·교구, 마을교육과정 등

Ⅲ. 유형에 따른 지원 사례

- ‘도심(읍)원거리학교’, ‘초·중 인접학교’

농·어촌학교(마을)의 활성화와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미래교육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위에 제시되어 있는 의제(영역)들에게 ‘지역 교육력(마을교육자본)’과 ‘주민 자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아래 소개되는 학교는 ‘도심(읍)원거리학교’ 인 동시에 ‘초·중 인접학교’의 유형이다. A교는 2분교와 3분교가 통합된 학교이고 B분교는 1분교와 1개분교가 통합되어 1개의 분교로 격하된 학교이다. 인구의 자연감소와 이로 인한 학구내 학생들의 읍으로의 진학으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들어 왔고 B분교는 통폐합을 눈 앞에 둔 상황이었다. 인근에는 학생 수가 더 적은 C교가 있고 A, B, C 학교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구 내 D중학교가 있다. D중학교는 A, B, C학교 졸업생들 읍으로 진학을 해서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던 터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교사, 학부모, 지역민이 ‘혁신학교’를 매개로 공동의 노력을 시작하였고 여러 성과와 한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1. 주요성과

가.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

1) A교는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내부의 기반을 다졌고 (2009-2010년), ’ 지역민,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였으며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생태, 예술 분야의 지역전문가들과 동아리를 시도하고 도시학교와의 교류활동등을 통해 혁신학교에서 지향하는 교육을 과감하게 실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났으며 농촌형 혁신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거점혁신학교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2) A교는 ‘혁신학교 권역’을 구성하고자 C교와 D중학교에 이를 제안하였으며 (2010년), 그 결과 A교와 D중학교가 혁신학교를 함께 운영하게 되었고 두 학교 모두 전입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A교 학부모회를 운영하였던 학부모들이 D중학교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에 진출하여 학부모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3) 특히, D중학교 입학대상 학생들이 구례읍 등의 외부 진학으로 인해 D중학교는 10년 이상 통폐합 1순위 학교로 위기에 있었는데 50여명(2014학년도 기준)의 학생 수로 거듭나 활성화 되는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나. B분교장 활성화

1) B분교는 10년 이상 폐교가 당연시 되었던 학교였다. 하지만, 활성화의 노력 4년 만에 30여명이 학생, 6학급의 학교로 활성화 될 수 있었다. B분교는 2015년 기준 지역 출신 학생이 2명(유치원 1명, 초등 1명)이고 27명(유치원 5명)의 학생이 타 도시나 읍에서 온 학생들이다. 구례 태생학생은 29명 중 3명에 불과하다. 좋은 교육을 위해 구례로 왔던 가정이나 좋은 학교를 찾던 중 B분교를 알게 되어 귀촌, 귀농 및 일시 이주한 가정들이 대부분이다.

B 분교장 학생 추이 ()는 유치원

구분	학급	유	1	2	3	4	5	6	계
2011년	2	0	0	0	1	0	3	3	7
2012년	2	0	2	0	0	1	0	3	6
2013년	3 (1)	5	2	4	0	0	3	0	14
2014년	3 (1)	7	4	2	5	2	2	3	25
2015년	5 (1)	6	4	6	2	6	3	2	29

위 제시된 사례는 성과를 내세우기 보다는 그 '요인'을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공유하였다. 위에 제시되지 않은 많은 사연과 성과들, 실패들이 있지만 지면으로 모두 공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음 기회에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기에는 농어촌학교(마을) 활성화가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 '미래교육'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와 관련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2. 주요요인1 - 혁신학교의 바탕

혁신학교의 바탕이 중요하다. 교무행정 업무와 불필요한 행사를 축소하고 업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 그 기반위에 함께 공유하고 협의하고 결정하는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동료성이 향상속에 교육이 질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학부모들의 관점과 견해,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학부모회를 적극 지원하고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했다.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가정의 결손과 교육기능 미비, 사회적 인프라 부족 등으로 학교교육을 아무리 잘 해도 반쪽짜리 교육밖에 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지역사회가 학교와 협력하고 학교 간(인근학교/ 초 중등) 연계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방과후 시간과 주말 등 학교교육 시간 이외의 영역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노력하여 다양한 제안을 하기도 하였으나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여 대부분 수포로 돌아갔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협력은 결국 '정치적 이해 관계를 잘 읽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이후 B분교의 활성화에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

3. 주요요인2 - 지역 교육주체들의 자발적 노력과 다양한 지원

작은학교는 한동안 통폐합의 정책적 기조아래 그 지원과 정책이 축소되어 왔다. 몇 년 후면 없어질 학교라는 인식으로 시설투자는 물론 교육활동비,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어느순간 정상적인 학교기능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왔다. 특히 B분교의 경우 그러한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어왔다. 10년 가까이 시설투자가 안되고 교육환경이나 교육활동비가 너무나도 열악하고 부족했다. 아래 내용은 2013학년도에 B교구성원들이 정리한 개선과제들이다.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 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특화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협력으로 해 나갈 수 있었다.

참고자료)

- 2012년 6월 28일 'B분교장 지원단' 회의 자료와 2013, 2015년 추진결과 -

단계	과 제	여부		내 용
		2013년	2015년	
1차/ 토대 구축	연곡교육계획(5개년 계획)수립 -자료제작(홍보자료) 및 홍보	○	○	- 학교교육계획 수립 - 홍보자료 컷 제작
	홈페이지 개설	△	○	- 지역전문가 협조
	교육 재능 기부단 구성 및 운영	△	○	- 학부모, 지역민 협조
	자유학구제 도입	△	○	- 2013년 도입(교육지원청 협조)
	통학차량 운영	○	○	- **초 통학차량 지원
	주택정보 제공	×	○	- 마을주민 협조
	근무연한 3년으로 확대	○	○	- A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
2차/ 동력 확보	돌봄프로그램 예산 지원	△	○	- 교육지원청 지원
	방과후 운영 예산 지원	○	○	- 교육지원청 지원 - 외부사업 공모
	생태/평화캠프 시작	○	○	- 마을주민 협조
3차/ 성장기	지리산 무지개학교 센터 건설	×	×	- 도교육청 지원하려 했으나 지자체 지원 부족으로 무산
	생태/평화캠프 활성화	×	×	- 센터와 연계된 계획이라 함께 무산
	자체급식 복원	○	○	- 2013년 4월 실시

4. 주요요인3 -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

위와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참고자료) 교육감 간담회 자료

교육감님 간담회 자료

‘작은학교 활성화’ 를 위한 건의사항

2012. 8. 17

B분교장 지원단

1. 학구제 조정 - 자유학구제 도입

가. 취지

분교장들은 자력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학구제가 협소한 상황

농산어촌의 인구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속에서 학생수의 자연감소는 곧 분교장들의 줄 이은 폐쇄로 이어질 것임

하지만, 분교장들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특성화된 교육’을 실현하고 분교장들이 마을과 함께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함

이에 희망하는 분교장들은 ‘자유학구제’로 지정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토대를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함.

나. 건의사항

도시지역(경기도 등)에서 B교로의 전입희망 학생이 현재 15명 정도가 있으나 D교 학구가 좁아 학구내 주택을 구하지 못하여 전학을 오기가 어려움

자유학구제 도입으로 전입희망 가정이 구례 내 다른 학구로(**면, 구례읍 등) 이주하더라도 D교로 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2. 분교장 근무교사들의 근무연한 확대 필요

가. 취지

분교장은 보편적으로 벽지가산점이 있어 근무연한이(2년 내지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

교사들의 분교장 단기근무는 학부모의 신뢰저하, 교사 책무성 약화, 장기적 비전을 가진 자구노력 추진의 어려움이 있음

이에 분교장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장기적 비전을 가진 학교활성화노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무연한 확대 방안이 필요함

나. 건의사항

첫째, ‘분교장 근무연한 확대’와 둘째, ‘분교장 초빙교사제 도입’이 필요함(초빙교사는 벽지점수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벽지점수 중심’의 분교장 인사시스템에서 탈피할 수 있음)

3. 교육활동 운영비 확대

가. 취지

전남 대부분의 본교에서는 돌봄교실이나 돌봄학교,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돌봄’기능을 대

폭 강화하고 방과후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분교장은 돌봄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설이 불가능하고 방과후학교 예산도 본교예산에 포함되어 교부되고 그 규모가 매우 적어(1인 1달 3만원 수준) 방과후 교육활동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움

보편적으로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학교의 돌봄기능이 더욱 많이 필요한 분교장 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원수’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기관, 학급의 개념으로 예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

나. 건의사항

분교장의 방과후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4. ‘지리산 무지개학교 센터’ 건립

가. 취지

전남교육환경의 특성상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더라도 가정교육이 함께 호흡하지 못해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보다 심화되고 집중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학부모 및 교사들을 위한 평생교육과 지역 거점 연수기관이 필요함

이에 본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구 내 학생들, 더 나아가서는 도시의 학생들에게 무지개학교의 질 높은 정규교육과정과 함께 심화된 생태교육, 인성교육(심성수련)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기본생활습관 형성, 프로젝트 교육과정 등의 교육활동이 가능한 환경조성이 필요함

나. 건의사항,

‘지리산 무지개학교 센터’ 건립을 통해 1) 학기 중 집중력 있고 통합적인 기숙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 휴일 및 방학 중 생태캠프, 평화캠프, 힐링캠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 교사들의 심화된 특수연수(생태교육, 심성수련 등)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함

참고자료) 권역 제안서

*** ‘무지개학교 권역’ 제안 개요

2010년 회의 자료

1. 지역교육의 문제점

- 1) 인구유출로 분교·폐교 급속도로 진행
- 2) 자연 여건은 우수하나 교육 및 문화시설 부족
- 3) 인근도시(광주, 순천) 출퇴근형 교사 대다수
- 4) 자녀 교육 문제로 **군 지역에 살던 교사들도 도시로 이사함
- 5) 고령화된 교사(열정부족), 신입교사(경험부족), 승진준비 교사(업무과중)의 비율 증가로 양질의 교육 어려움

2. **.**교육의 문제점

1) 교사

- (1) B교 및 D중학교의 통폐합 학교 지정으로 인한 갈등 요소 상존
- (2) 취학 아동들의 중학교 읍 진학으로 마을이 활기를 잃어감
- (3) 입학시 저학력 학생들이 많아 지도에 어려움을 겪음

2) 학생

- (1) 학력 저하, 자신감 상실, 문화적 박탈감
- (2)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의 증대로 섬세한 생활지도 필요 부각
- (3) 고향에 대한 애착 및 자부심 결여
- (4) 소규모 집단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선택 여지가 좁음 (방과후학교 등)

3) 학부모

- (1) 자녀 교육을 위해 읍이나 도시로 진학 경향 확산됨
- (2) 타 지역 보다 뒤처진다는 불안감을 느낌
- (3) 폐교 위기감에 따른 지역민의 만성적 피로도 누적
- (4) 지역에 애착을 갖고 함께 생활하는 교사 요구

3. **.**에 '무지개학교 권역'이 필요한 이유

- 1) 자연 속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타 지역 학생의 농촌 이주 계기가 되어 인구 유인책이 될 가능성 매우 높음(다른 지역 사례가 증명)
- 2) 초·중등 연계교육을 통한 교육 효율성 향상
- 3) 젊은 청장년층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 유지
- 4) 도시와 농촌 간 균형적인 발전 모델 제시
- 5) 타 농·어촌 학교에도 전파되어 전체적인 교육의 질 향상 기대
- 6) 지역사회학교(마을도서관 및 각종 공연, 강좌 프로그램 운영 등)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전라남도교육지원청이 제시하는 '무지개학교'의 상

- 1) 교육 본연의 가치에 충실한 학교
- 2) 학생, 학부모, 지역민, 교사가 자신의 학교와 지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학교
- 3) 경쟁보다는 나눔과 협동, 돌봄을 함께하는 학교
- 4) 생태·예술·문화교육을 중시하는 학교 (미래 핵심역량)
- 5) 체계적인 체험교육을 중시하는 학교 (정보화시대 교육원리)
- 6) 지역민들의 문화 활동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 학교

5. **..에 ‘무지개학교 권역’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 1) 사회적 기대감이 높음 (각종 신문, 언론에서 성공 사례 보도)
- 2)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이 우수하고 열정적인 교원 배치로 교육력 향상
- 3)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수업의 질이 높아짐
- 4) 타 지역 새로운 학교와 협력관계를 통해 우수 운영 사례 공유
- 5) **초와 교사들의 오랜 연구 누적물과 네트워크망

6. 예상되는 효과

- 1) 질 높은 연구와 교육활동을 통해
 - 학 생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미래 핵심역량 습득, 초·중등 연계교육
 - 학부모 : 학교에 대한 신뢰 확산,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 교 사 : 교육적 성취감 고취, 교육자로서의 성장
- 2) 지역사회 : 전출 감소 및 인구 유입으로 인한 활력
- 3) * * 교육 : 미래형 학교교육과 농·어촌 학교 교육의 모범 사례로 교육계에 기여
- 4) * * 군 : 도시-농촌간 균형적 발전

7. **..‘무지개학교 권역 추진단’구성 및 운영 제안**

- 학교, 학부모,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함께 하는 추진단 구성
- 1)분과 운영과 2)정기회의를 통해
- 단기적으로 ‘무지개학교 추진’을 위한 내용 및 협조사항을 협의
- 장기적으로 **.**.의 교육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

1) 분과

▶ **교육연구 분과**

- ‘무지개학교’ 초등, 중등 교육계획 연구 및 수립
- 초·중등 연계 교육계획 수립
-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 구성 : 각 학교 ‘무지개 학교’ 담당교사, 담당 장학사

▶ **교육지원 분과**

- 교육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모색
- 실질적 지원방안 심의 및 집행
- 구성 : 각 학교 교감, 지자체 업무 담당자, 담당 장학사

2) 정기회의

- 각 부문장 (교육장, 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도의원)이 참여하는 정기회의
- 전반적인 사항 점검 및 주요사항 결정
- 간사를 두어 회의 내용 준비 및 결정사항 집행

참고자료) 도의원 협력 사례

협조요청서

1.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 귀교의 노력에 존경을 표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관계자들 모두가 협력하여 '무지개 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3학교가 '시범 무지개학교'로 선정된 점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무지개학교 권역'을 통해 전라남도에서 선도적으로 무지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 외 평가에 대해서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3. 이러한 성과 속에 전남교육정책의 주요한 기본 틀이 될 '전남교육 2020'에 제시되어 있고 지역교육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 '지리산 무지개학교'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 바쁘시겠지만 자리 함께 하셔서 지역 교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힘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1년 3월 8일 15:00
 - 장 소 : **초등학교
 - 참가대상 : 교육장, 전라남도구례군 부군수,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학교장, 학교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무지개학교 담당교사, **면장, **면장. 끝.

전라남도 도의원 ***

수신자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라남도 구례군 부군수, **초등학교장, 간문
등학교장, 구례D중학교학교장, 구례북중학교장, **면사무소장, **면사무소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
전화 전송 / /

5. 주요요인4 - 학생 중심 미래 지향적 교육활동 운영

참고자료) 2013학년도 B분교장 교육과정 체계

	영역	교육중점	중심 프로그램
정규 교육 과정	교과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① 맞춤형 교육과정 - 개인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배움 중심의 수업	② 협력적 배움 중심 -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실시
		삶과 연계된 교육	③ 삶과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 -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과 수업
	창의 적 체험	예술 교육 체계화	④ 예체능 교과와 방과후 교육활동 연계 - 교과(기초)와 방과후(심화) 연계
		생태 교육	⑤ 지리산 생태 교육, 지리산 캠핑, 종주 등
		평화 교육	⑥ 내안의 평화(명상), 지리산 역사 알기, 평화캠프 운영
방과 후	특기 적성	예술 심화교육	⑦ 상설 동아리 활동
		스포츠 심화교육	⑧ 지역 스포츠 관련 단체 지원 - 축구, 배구, 수영, 배드민턴, 골프 등
		진로교육	⑨ '무지개 지리산 학교' 운영(인문 강좌)
방학 중	주제 캠프	생태캠프	⑩ 숲 전문가 과정(입문, 기본, 심화) 생태캠프
		평화캠프	⑪ 명상캠프(입문, 기본, 심화)
돌봄	생태	지역 유기농 농산물과 무공해 생활환경	⑫ 환경호르몬 제로 건물, 텃밭 가꾸기, 맞춤형 식단, 자연건강법
	돌봄 교실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⑬ 저녁식사 및 선택활동

참고자료) 2013학년도 B분교장 6학년 프로젝트형 교육과정 사례

역사기행 (89시간)					
과목	성취기준	시간	교육활동 (시수)		
국어	문학 작품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 이해	5	1.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 이해 가. 선사시대 나. 고조선 다. 고구려, 백제, 신라 라. 통일 신라와 발해 생활 모습	10	
	사건을 기록한 글에서 인과 관계에 유의하면서 사건의 흐름 파악	7			
	시간 표현 방식 이해	3			
	국어	다양한 서평을 읽고 서평의 특성과 기능 이해	2	2. 책을 통해 본 역사 나. 서평의 특성과 기능 다. 인과 관계와 사건의 흐름 라. 전기문을 통해 본 인물	12
		발표를 듣고 매체 활용의 효과 판단	3		
		대상의 특성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	3	마. 역사서에 나타난 시간 표현 방식	
		사건 전개와 인물의 관계 파악	2	3. 역사기행(경주기행) 준비 가. 경주여행 관련 책 읽기 나. 경주에서 가볼 곳 정리 다. 경주기행 일정 짜기 및 예약	
	도덕	광고에 나타난 정보의 신뢰성 평가	2	4. 역사기행(경주기행) 가. 유물과 유적을 통한 이해 나. 음악, 미술의 특징 다. 여행지에서의 적절한 말 라. 관광영어 마. 상황에 맞는 음식 조리	20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과 통일 이후의 문제에 대한 대비		1			
사회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들과 실천 방안 토론	1	5. 역사기행(경주기행) 정리 가. 기행문 작성 나. 포토에세이 제작 다. 발표	4	
	선사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유물과 유적을 통해 파악	3			
	단군의 건국 이야기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	4	6. 역사기행(탐구) 가. 고려의 역사 나. 책을 통해 본 역사 다. 탐구보고서 작성	10	
	역사지도와 인물 이야기속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 과정	4			
	유물과 유적 속 삼국, 통일 신라와 발해 시기의 사람들의 생활	3			
	고려의 성립 과정과 견훤, 궁예, 왕건 등의 활동	3			
	음악	외적의 침략과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 조사	4	9. 역사기행(경주기행) - 경주기행 참조	10
		주변 국가와 활발한 교역 및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이해	4		
미술		신라, 고려, 조선 시대 음악의 특징	4	10. 역사기행(서울기행) 정리 - 경주기행 참조	4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특징을 알아보고 문화적 전통을 이해	4		
실과	상황에 맞는 간단한 음식	5	11. 평가 (전시 및 발표회)	2	
	상황에 맞는 간단한 말이나 대화	2			

IV. 마무리 하며

지역의 거점이 되었던 A교는 혁신학교를 시작하고 추진하였던 교사들이 근무연한 만료로 학교를 떠나고 나서 외부 전입생이 줄어 들며 학생 수가 자연 감소하는 상황이다. B분교장도 2016년 6학급(29명)까지 늘어났다가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근무연한 만료로 떠나고 나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현재 2학급(5명)이다. D중학교는 혁신학교 운영이 만료되고 A교와 C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이나 교류가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읍으로 진학을 많이 해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결국 별다른 노력이 없다면 A학교는 계속해서 더 작은 학교로, B분교장, C교, D중학교는 수동적인 통폐합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주체들의 노력으로 활기차고, 희망차고, 행복했던 2012년 - 2015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시작과 성취가 가능했고 왜 쇠퇴하고 다시금 암울해 지고 있는가? 그 시기에 열심히 했던 교사들이 계속 남아 있었다면 지속적 유지 발전이 가능했을까? 필자는 그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했다면 여러 부족함이 있었지만 전남형 혁신학교, 전남형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했던 그 시기 혁신학교를 일구고 혁신교육지구를 도모했던 교사들은 현재 다른 학교나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혁신학교를 일구고 교육의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 실천하고 있다. 민들레 홀씨처럼 확산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교사들의 정주 지원만이 대안은 아니다.

함께 해야 한다. 함께 해야 가능하다. 교육주체들과 교육청과 지자체와 마을주민들이 함께 하고 혁신학교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사업과 미래학교사업을 통합적 관점으로 함께 해서 더 많은 학교와 지역에서 농어촌학교(마을)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루어 가길 바란다.

참고자료 1> 전라남도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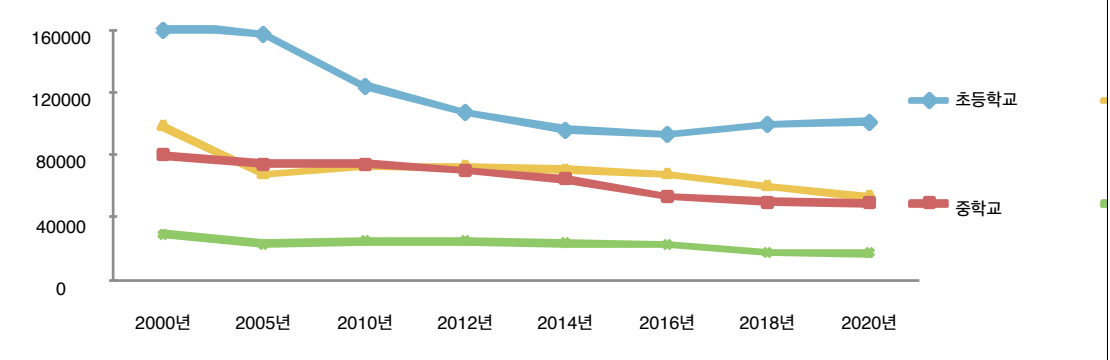
○ 2000년 말 대비 2016년 14%가 감소
 ○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약 0.15%의 감소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00년 이후 5년 단위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00~'20 증감
인구(명)	2,034,970	1,852,119	1,777,067	1,756,831	1,743,328	-291,642
증감		-182,851	-75,052	-20,236	-13,503	(비율: -14.3%)

○ 2016년 이후 매년 추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인구(명)	1,754,879	1,752,318	1,749,436	1,746,333	1,743,328	
증감	-1,952	-2,561	-2,882	-3,103	-3,005	
감소비율	-0.11%	-0.15%	-0.16%	-0.18%	-0.17%	안정적 감소세

[전라남도 학생 수 추이]



참고자료 2> 전라남도 작은학교 현황

1. 전남 학교수

구분	초			중			고			계		
	본교	분교	계	본교	분교	계	본교	분교	계	본교	분교	계
전체 학교 수	429	60	489	248	8	256	142	-	142	819	68	887

2. 적정규모 대상학교 (60명 이하 - 정부기준 통.폐합 대상학교)

구분	초			중			고			계		
	본교	분교	계	본교	분교	계	본교	분교	계	본교	분교	계
작은학교 수	180	60	240	116	8	124	8	-	8	304	68	372